대중음악
한국대중음악학회, 통권 28호

방탄소년단의 〈Dynamite〉 작품 분석

정진(추계예술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 교수)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방탄소년단의 <Dynamite> 작품 분석
   2.1. 구조적 특징
   2.2. 리듬적 특징
   2.3. 선율적 특징
   2.4. 화성적 특징
   2.5. 텍스쳐적 특징
3. 결론

본 논문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노래 <Dynamite>의 작품 분석 연구이다. 음악적 분석을 통해 다양한 작곡 기법과 음악 어법을 파악하여 창작자들의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되게 하며 한국대중음악의 음악적 연구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작품의 구조적, 리듬적, 선율적, 화성적, 텍스쳐적 특징을 분석 연구하였다.

<Dynamite>는 곡의 형식상 12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각 부분은 특색 있는 음악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모티브가 되는 4개의 리듬형이 반복, 축소,

http://doi.org/10.36775/kjpm.2021.28.383

확대, 역행, 변형, 결합되며 악곡 전체로 전개되고 붙임줄로 인한 강세 변화로 다양한 리듬 패턴을 생성한다. 선율은 주로 E음과 C#음이 사용되는데 동음 반복되거나 이 두 음만을 사용한 선율이 <코러스>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나타난다. <코러스>는 6개 음으로 구성된 순차진행 선율이 하행과 상행으로 나타나 노래하기 쉬운 선율을 만든다. 이 곡의 화성은 코드 4개가 순환 반복하는 단조로운 진행이 나타나고 있다. 보컬이 주선율을 노래하고 악기가 반주를 담당하는데 12개의 각 부분은 성부 수, 음색, 음역, 편성 방식에 변화를 주어 다채롭고 조화로운 텍스쳐를 만들고 있다. 이 작품은 선율과 화성에서는 대중성과 통일성으로, 리듬과 텍스쳐에서는 변화와 다양성을 반영하여 균형 잡힌 작품의 조화를 만들어 낸다.

본 논문은 그동안 업적과 영향력에 비해 음악적 연구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의 <Dynamite>를 음악적 관점으로 깊이 있게 분석 연구함으로써 한국대중음악 작품 연구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핵심어 : 방탄소년단, BTS, 다이너마이트, 음악분석, 대중음악, K-POP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방탄소년단은 2020년 8월 〈Dynamite〉를 시작으로 〈Life goes on〉, 〈Butter〉, 〈Permission to dance〉 등의 곡을 발매해 2021년 9월 현재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총 16번의 1위를 기록했다(박세연, 2021). 또한, 기네스 세계 신기록(Guinness World Records)에 음악 관련 총 23개의 세계 기록을 갱신하였고(김두연, 2021) 최근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연설과

공연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유원정, 2021)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를 넘어 전 세계 청년세대 아이콘으로 그 영향력을 국제무대로 넓히고 있다(김효정, 2021).

2021년 제18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는 방탄소년단의 〈Dynamite〉를 '올해의 노래'와 '최우수 팝' 부문에 선정하였다. 선정위원 이규탁은 우리 가요 역사상 한국 가수 최초의 빌보드 핫100 1위 곡이며 2020년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곡으로 〈Dynamite〉가 갖는 상징성과 대중성을 높이 평가했다(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노래). 〈Dynamite〉는 팬데믹 상황 속 삶의 소중함과 인생의 특별함을 담은 곡으로(멜론, Dynamite 앨범 정보) 세 번의 빌보드 핫100 1위뿐 아니라 국내 여러 음악 차트에서도 장기간 1위를 기록하며 오랜 시간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처럼 음악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행보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의 관심사가 되었고 방탄소년단의 성공 분석, 사회·경제적 효과와 파급력, 다른 예술과의 연관성, 팬덤 등을 주제로 한 학술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방탄소년단 음악에 나타난 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박소은, 2019), 〈봄날〉 뮤직비디오에 나타난 이미지 연구(장정윤, 2020), 〈아이돌〉의 한국 전통 리듬적 요소를 교수학습방법에 적용하는 연구(윤아영·박영주, 2020), 방탄소년단 노랫말 분석 연구(김영환·윤보미·김선정, 2021), 방탄소년단 노래 가사 감상 활동이 청소년 심리에 미치는 영향 연구(김지원, 2021) 등으로 그 수가 적었고 음악만을 대상으로 한 작품 분석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었다.

따라서 한국 가수 최초의 빌보드 핫100 1위 곡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상업적 성과를 거둔 방탄소년단의 〈Dynamite〉를 음악적 관점

으로만 바라보고 심도 있는 작품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으며 한국대중음악 음악연구 발전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갖는다. 첫째, 〈Dynamite〉의 악곡 구조를 파악한다. 둘째, 곡에 담긴 리듬, 선율, 화성, 텍스쳐(texture)의 특징을 분석하여 작품 세계를 탐구한다. 셋째, 작품에 담긴 대중성, 통일성, 다양성의 음악 어법을 읽어내 대중음악 창작자들의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되게 한다. 넷째, 한국대중음악의 음악적 연구에 기여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2020년 8월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곡 〈Dynamite〉 음악만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다. 〈Dynamite〉는 추가로 인스트루멘탈(Instrumental) 버전과 9곡의 리믹스(remix) 음원을 발매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컬이 포함된 최초 발표곡 〈Dynamite〉 원곡을 연구 범위로 삼았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Dynamite〉 음악을 수십 회 반복 감상하였고 1차 채보를 통해 직접 악보를 제작하였다. 채보의 정확성을 위해 기존에 출판된 〈Dynamite〉 악보들을 수집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다른 부분들이 발견되어 2차 채보를 거쳐 재수정 하였고 최종 사보 악보를 본 연구의 작품 분석에 사용하였다. 악보 사보 프로그램은 피날레2018을 사용했다.

본 논문의 주된 연구방법은 음악분석이다. 음악분석은 우리가 어떻게 음악을 듣고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음악 요소들의 상호 관계와 전체 구성 원리를 파악하고 작곡가의

창의적 작법을 발견하여 이를 연주, 감상, 음악 학술 연구에 적용(윤양석, 1990:57)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음악 요소들은 형식, 리듬, 선율, 화성, 텍스쳐이고 윤양석(1990)이 제시한 미시분석, 중간분석, 거시분석 방법을 반영하여 분석 서술하였다.

본 논문의 구체적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Dynamite〉의 앨범 발매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음원 사이트 멜론과 지니뮤직의 앨범 정보를 조사하였다. 곡의 구조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행연구 되었던 자료를 토대로 작사·작곡가 정보, 가사 형태를 기술하였고 곡의 조성, 박자, 템포, 장르, 곡 길이, 곡의 형식 구분은 연구자가 채보한 악보와 음악 반복 청취를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곡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형식 파악은 본 연구의 작품 분석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로 모두 12개 부분으로 형식을 구분하였다. 각 부분에는 〈전주〉, 〈벌스〉, 〈프리코러스〉, 〈코러스〉, 〈포스트코러스〉, 〈간주〉 등의 용어를 붙였고 같은 선율이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편곡 적 요소가 있을 시 1, 2등의 번호를 붙여 별도로 구분했다. 음악 형식을 구분하고 지칭하는 용어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어정리를 하였다. 인트로, 인트로덕션은 〈전주〉로 사용하였다. 후렴, 훅(Hook), 리플레인(Refrain)은 모두 〈코러스〉로 표기하였다. 〈Dynamite〉는 보통 형식 구분에 명명하는 〈브릿지〉보다 곡의 전개상 〈포스트코러스〉로 보는 것이 더 나은 견해라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코러스〉로 사용하였다. 〈브릿지〉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다른 섹션을 연결하며 대조(Jack Perricone, 2002:87)를 보이는데 이 부분은 〈코러스〉의 후반 여덟 마디 선율을 반복 확장하고 있어 〈브릿지〉로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인터루드는 〈간주〉로 표기하였다. 곡 분석에 사용된 마디 번호는

연구자가 채보한 악보의 마디 번호를 표기한 것으로 12개의 각 부분에서 마디 번호 중복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돌이표 등의 반복 기호는 사용하지 않고 사보하였다.

리듬적 특징을 다룬 2장 2절에서는 보다 직관적인 설명을 위해 채보한 악보를 리듬과 가사만 표기된 리듬 악보로 변환하여 사용했다. 주제 모티브(motive)를 구성하고 있는 리듬형에 집중하여 리듬 반복, 변형, 결합 등의 전개 양상을 분석하였고 곡에 나타난 리듬형 결합 구조 표식은 지면 관계상 〈벌스1〉만 예를 들어 작성하고 이후에 언급될 〈프리코러스〉, 〈코러스〉 등의 리듬형 결합표는 지면 관계상 제시하지 않았다.

선율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율과 가사만 표기된 선율악보를 사용하였고 중심음과 선율의 진행 방향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화성적 특징을 다룬 2장 4절에서는 코드가 첨가된 선율악보를 사용하였다. 이 노래에 사용된 네 개의 코드 중 B7sus4 코드의 경우 선율을 포함시켜 B11 코드로 해석할 수 있지만 〈Dynamite〉의 인스트루멘탈 음원 사운드를 참고하여 B7sus4 코드로 화성분석 하였다. 순환되는 네 개의 코드 사용에 있어 정속, 가속, 감속 여부를 조사하였고 전조 방식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텍스쳐적 특징을 살펴본 2장 4절에서는 먼저 음악에서 텍스쳐의 의미와 텍스쳐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관해서도 기술했다. 〈Dynamite〉가 보컬 파트와 반주 파트로 이루어진 호모포니 스타일의 곡이기 때문에 텍스쳐적 특징도 보컬과 반주로 구분하여 설명했고 각 성부의 역할과 부분별로 차별화된 텍스쳐 양상을 분석해 내는 데 집중하였다.

결론에서는 전체 작품 분석 내용을 정리하고 〈Dynamite〉가 내포한 대중성의 요소와 음악 미적 형식 원리에 바탕이 되는 통일성과 다양성의 요소를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2. 방탄소년단의 〈Dynamite〉 작품 분석

〈Dynamite〉는 2020년 8월 21일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Dynamite (DayTime Version)] 앨범의 수록곡이다. 발매 시 〈Dynamite (instrumental)〉 트랙이 포함되었고 이후에 4곡의 리믹스(remix) 버전 음원을 추가 발매하며 이 앨범 수록곡에 포함시켰다.

또한, 2020년 9월 18일에는 [Dynamite (NightTime Version)]으로 이름 붙인 별도의 앨범을 발표하였다. 이 앨범에는 앞선 [Dynamite (DayTime Version)]에서 발표된 〈Dynamite〉 원곡과 〈Dynamite (instrumental)〉을 그대로 1, 2번 트랙에 담았고 새로운 버전의 리믹스 음원 4곡을 수록하였다.

방탄소년단은 2020년 11월 20일에 앨범 [Be]를 발매하는데 8월 첫 발매 당시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던 〈Dynamite〉를 마지막 트랙에 재수록 하였다. 2020년 12월 11일에는 〈Dynamite (Holiday Remix)〉 버전 1곡을 추가 발매하여 방탄소년단의 〈Dynamite〉는 모두 11개의 버전으로 발표되었다.

2.1. 구조적 특징

〈Dynamite〉는 영국인 프로듀서이자 작곡가 데이비드 스튜어트(David Stewart)와 제시카 아곰바르(Jessica Agombar)가 공동 작사, 작곡한 영어 가사로 만들어진 노래이다(롤링스톤 편집부, 2021:70). 조성은 E장조, 4/4박자, BPM 114 템포를 갖는 디스코 팝(disco pop) 곡으로 곡 길이는 3분 19초이다. 〈Dynamite〉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한다.

〈표 1〉 〈Dynamite〉 곡 형식 구분과 마디 번호

전주(4마디)	벌스1(8마디)	프리코러스1(8마디)	코러스1(8마디)
1-4	5-12	13-20	21-28
벌스2(8마디)	프리코러스2(8마디)	코러스2(8마디)	포스트코러스1(8마디)
29-36	37-44	45-52	53-60
간주(8마디)	코러스3(8마디)	코러스4(8마디)	포스트코러스2(8마디)
61-68	69-76	77-84	85-92

〈Dynamite〉는 총 92마디 곡으로 〈전주〉를 제외한 모든 파트가 8마디로 되어 있고 〈전주〉만 4마디로 구성되었다. 후반부 〈코러스4〉부터는 조성이 온음 위인 $F^{\#}$장조로 전조 되고 마지막 〈프리코러스2〉까지 $F^{\#}$장조를 유지하며 〈후주〉 없이 곡을 종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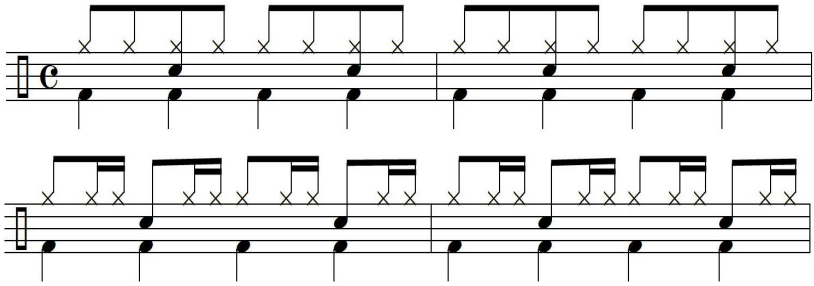
〈벌스1〉과 〈벌스2〉를 비교하면 주선율은 유사하나 1절, 2절 가사 음절에 따라 리듬 변화가 나타난다. 〈프리코러스1〉과 〈프리코러스2〉의 두 파트는 노래 선율은 거의 같고 랩 스타일에서 일부 변화가 보인다. 〈코러스1〉, 〈코러스2〉, 〈코러스3〉, 〈코러스4〉의 노래 선율은 동일하게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각 부분은 백그라운드 보컬의 화음 쌓는 방식, 악기 편성, 전조 등 서로 다른 편곡 스타일을 보이고 마지막 〈코러스4〉는 $F^{\#}$장조로 전조되어 조성의 변화를 주고 있다. 〈포스트코러스1〉과 〈포스트코러스2〉는 동일한 선율을 가진 부분이나 〈포스트코러스2〉도 $F^{\#}$장조로 전조되어 곡을 종결한다.

2.2. 리듬적 특징

〈Dynamite〉에 사용된 주된 리듬 형태는 흥겹고 발랄한 디스코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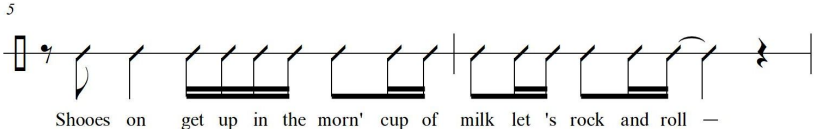
듬이다(멜론, Dynamite 앨범정보). 디스코는 베이스 드럼이 한 박자에 한 번씩, 한마디에 네 번 연주되어 댄스음악의 경쾌한 리듬감을 표현한다.

〈그림 1〉 디스코 리듬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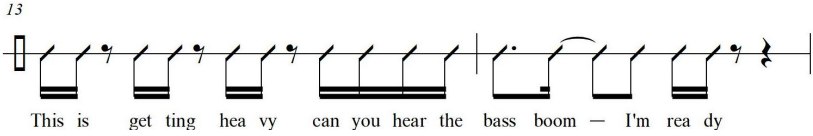


드럼뿐 아니라 〈Dynamite〉의 보컬 파트 주요 리듬도 디스코 리듬 형태에 기초를 두고 있다. 베이스 드럼의 4분음표 리듬형, 하이햇의 8분음표, 8분음표와 16분음표의 결합 리듬형 등은 모방, 변형되어 전체 보컬 파트 리듬으로 발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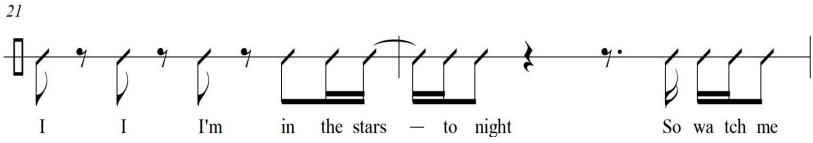
〈그림 2〉 〈벌스1〉 첫 모티브 리듬 (제5-6마디)



〈그림 3〉 〈프리코러스1〉 첫 모티브 리듬 (제13-14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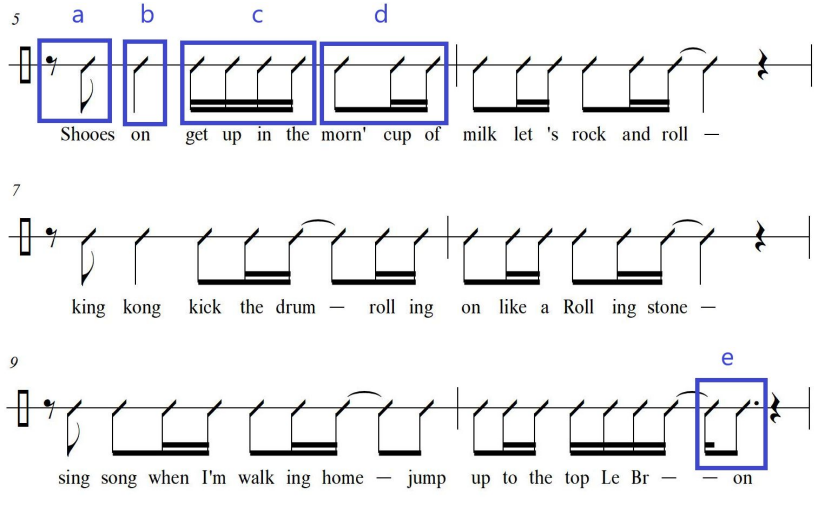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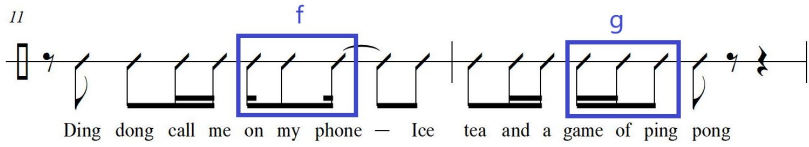
〈그림 4〉〈코러스1〉 첫 모티브 리듬 (제21-22마디)



아래 〈그림 5-1〉에서 보면 〈벌스1〉의 리듬은 모티브가 되는 4개의 리듬형 a, b, c, d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리듬형은 d형으로 8분음표와 2개의 16분음표가 결합된 형태이다. 〈벌스1〉 의 제5, 7, 9, 11마디의 첫 박자는 모두 리듬형 a로 시작된다. 리듬형 c, d는 여러 조합으로 결합되어 다양한 리듬 패턴으로 발전되고 있다. 특히 리듬형 e, f는 리듬형 c의 확대형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고 리듬형 g는 리듬형 d의 역행이자 c의 확대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벌스1〉 리듬 (제5-11마디)





〈벌스1〉 악절에 나타난 리듬형 결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붙임줄을 사용하여 리듬 강세 위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변형'으로 추가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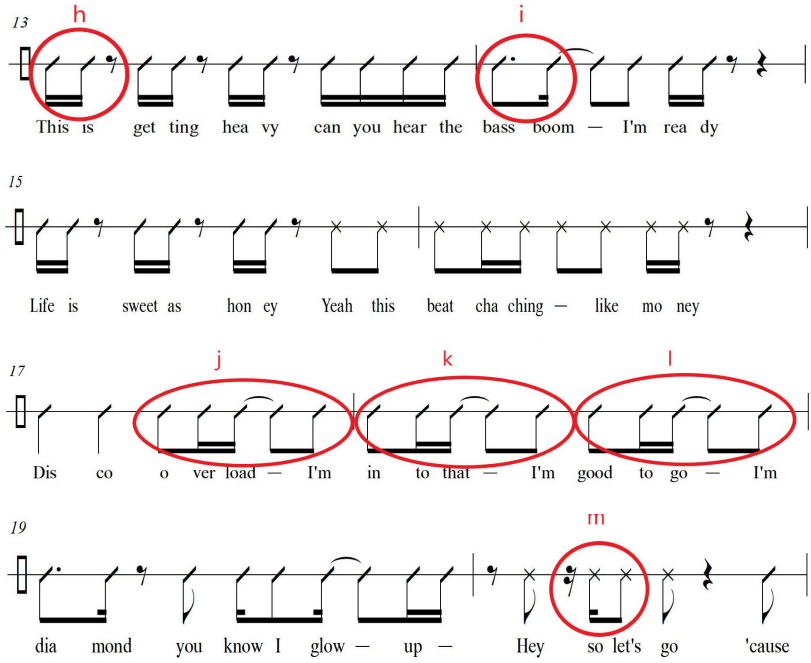
〈표 2〉 〈벌스1〉 리듬형 결합표

마디 번호	리듬형 결합	
5-6마디	abcd	ddbb변형
7-8마디	abdd변형	ddbb변형
9-10마디	adda변형	dceb
11-12마디	adfa	dgab

〈프리코러스1〉의 리듬형 h는 〈벌스1〉의 12마디 리듬형 g의 뒤 8분음표를 음표 대신 쉼표로 전환한 리듬형으로 볼 수 있고 리듬형 c의 확대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리듬형은 제13, 15마디에서 1, 2, 3박에 연속 세 번씩 사용하여 해당 리듬을 강조한다. 〈프리코러스 1〉에서도 여전히 리듬형 d가 전체 리듬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붙임줄을 사용한 악센트 위치 변경으로 리듬 강세에 변화를 주고 있다. 처음 나타난 제14마디 리듬형 i는 리듬형 e의 역행 리듬이고, 리듬형 m은 리듬형 g의 축소형이다. 또한, 제17-18마디에서는 리듬형 j가 같은 리듬 k, l로 연속 세 번 동형진행 되고 있다. 이 리듬형은 〈벌스1〉 제9마디에서 리듬형 d와 a가 변형 결합되어 생성

된 리듬 패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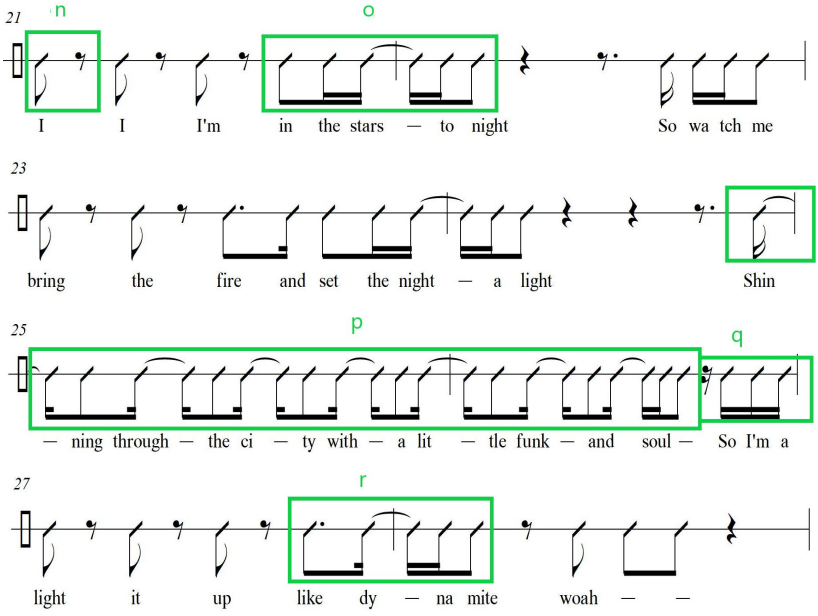
〈그림 6〉〈프리코러스1〉 주요 리듬 (제13-19마디)



다음 〈그림 7〉은 〈코러스1〉의 리듬 악보이다. 제21, 23, 27마디의 1, 2, 3박에 나타난 리듬형 n은 앞 〈벌스1〉의 리듬형 a의 역행형이다. 리듬형 a가 약박에 강세를 준 형태라면 〈코러스1〉 처음에 나타난 리듬형 n은 강세를 강박으로 이동시키고 세 번 연속 반복하여 새로운 파트에 대한 리듬 변화를 시도한다. 또한, 리듬형 o는 〈벌스1〉 12마디에서 사용된 리듬형 g와 그 앞 리듬 조합이 붙임줄로 연결된 형태이자 〈프리코러스1〉의 리듬형 j의 축소 분할로 해석할 수 있다. 리듬형 r은 리듬형 o의 확대, 리듬형 q는 리듬형 c의 축소로

볼 수 있다. 특히 제25-26마디에서는 〈벌스1〉에서 사용된 리듬형 f가 여섯 번 연속 사용되어 앞뒤 악구들과는 다른 리듬적 대조를 보여준다. 이 새로운 리듬 진행으로 〈코러스1〉 파트는 대비 악절을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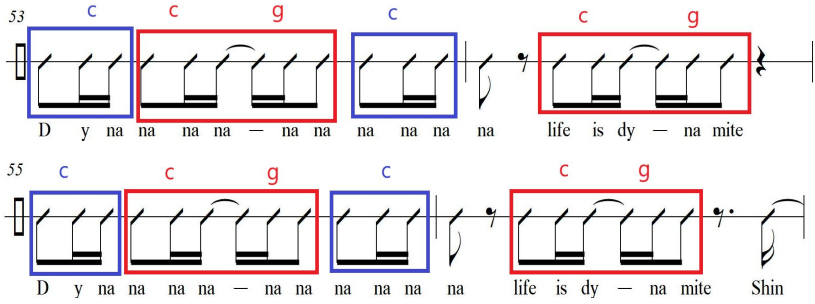
〈그림 7〉 〈코러스1〉 리듬 (제21-28마디)



〈코러스1〉을 마치면 〈벌스2〉로 반복되고 큰 변화가 없는 〈프리코러스2〉와 〈코러스2〉 진행 이후에는 〈포스트코러스1〉 파트가 나타난다. 〈포스트코러스1〉 전반 네 마디에 사용된 리듬은 기본 리듬 c형과, c형의 역행 형태의 리듬 g형이 붙임줄로 결합된 리듬 패턴으로 나타나 반복 연주된다(〈그림 8〉 참조). 〈포스트코러스1〉 후반 네 마디에서는 〈코러스1〉 후반 제25-28마디에서 사용했던 네 마디 리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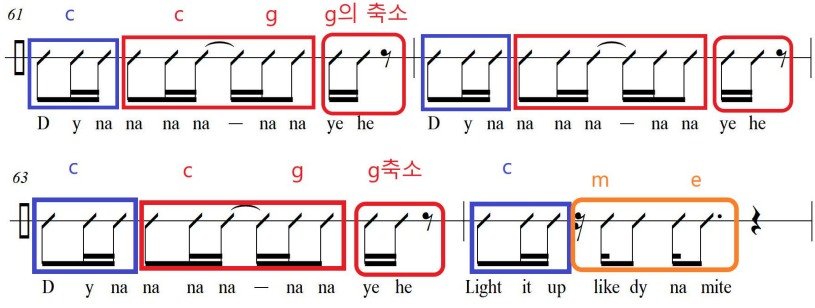
을 동일하게 모방한다(〈그림 7〉 참조).

〈그림 8〉 〈포스트코러스1〉 전반 네 마디 리듬 (제53-56마디)



〈Dynamite〉 제61마디부터 나오는 〈간주〉는 특이하게 악기 편성은 축소되고 보컬이 리듬 패턴을 노래한다. 〈간주〉에 사용된 주요 리듬도 위 〈그림 8〉에서 보여준 〈포스트코러스1〉의 전반부의 리듬을 비슷하게 모방하고 있다. 리듬형 g의 축소형과 앞부분에서 나타났던 리듬 m, e형도 악구의 종결 리듬으로 나타난다. 〈간주〉는 전반 악구 제61-64마디와 후반 악구 제65-68마디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대등 악절을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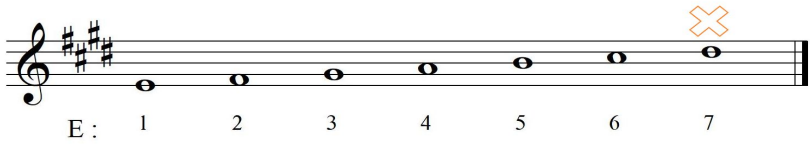
〈그림 9〉 〈간주〉 전반 네 마디 리듬 (제61-64마디)



2.3. 선율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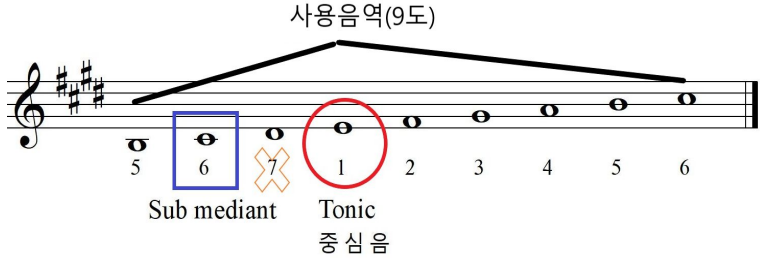
〈Dynamite〉는 E장조의 곡이다. 하지만 음계의 리딩톤(leading-tone)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있어 노래 선율에 나타나는 음계는 7음이 생략된 E장음계로 볼 수 있다.

〈그림 10〉 〈Dynamite〉 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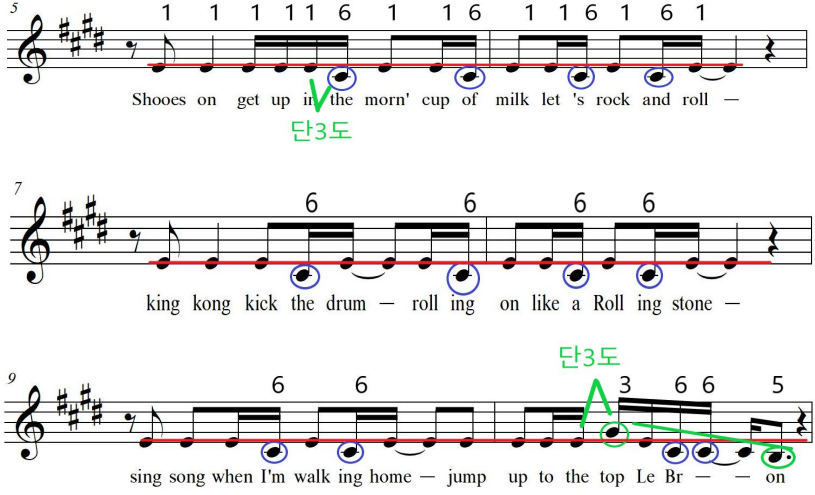
〈Dynamite〉 노래의 가장 낮은음과 가장 높은음의 음정 차이는 9도이다. 이는 후반 〈코러스4〉로 전조되기 전 E장조의 음역으로 동일한 선율이 온음 위로 한 번 더 반복되는 전조 부분까지를 포함한다면 전체 10도 음정 범위를 노래에 사용하고 있다. 보통 대중이 부르는 의식가, 군가, 국민가요 찬송가 등의 음역이 11도-12도 음폭으로 작곡되는데(김정양 · 이종록 · 한광희, 2000:103) 이를 감안하면 〈Dynamite〉는 누구나 쉽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역임을 알 수 있다. 〈Dynamite〉 노래 선율은 토닉(Tonic) E음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완전4도 아래 B음까지, 위로는 장6도 위 C#음까지를 음역으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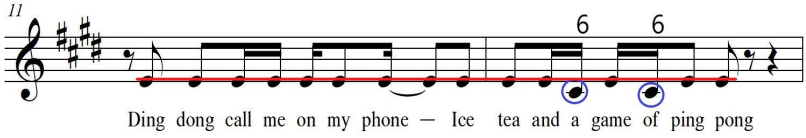
〈그림 11〉 대중성 음역과 〈Dynamite〉 노래 음역



〈Dynamite〉에서 보이는 가장 큰 선율적 특징은 토닉 E음이 동음으로 반복되며 〈코러스〉를 제외한 모든 파트에서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벌스1〉을 살펴보면 제5-12마디에 나타난 총 59개 음 중에서 E음이 43번, C#음이 14번, G#음이 1번, B음이 1번 사용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E음은 72.9%의 빈도를 보이며 선율선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2〉 〈벌스1〉 선율에 많이 사용된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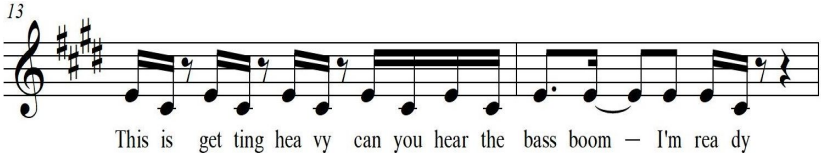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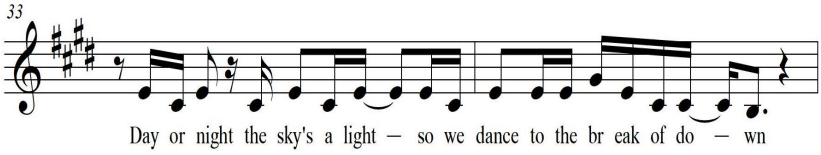
E음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음은 서브 메디안트(sub mediant)음인 $C^{\#}$음으로 〈벌스1〉에서 23.7%의 사용 빈도를 보인다. 음계의 6음에 해당하는 $C^{\#}$음은 토닉인 E음과 하행 단3도 음정 관계를 이룬다. $C^{\#}$음은 E음이 동음 반복하며 수평적인 진행을 보이는 선율선에 빈번하게 사용되어 전회된 아치형 선율 윤곽선을 형성하며 진행 방향에 변화를 주고 있다. 위 〈그림 12〉 제10마디를 살펴보면 $G^{\#}$음이 〈벌스1〉에서 처음으로 한 번 나타나는데 E음과 상행 단3도 음정 관계를 만들어 아치형 선율선을 형성한다. 같은 마디 마지막 B음 또한 〈벌스1〉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G^{\#}$음을 시작으로 E음, $C^{\#}$음, B음으로 하행하며 선율 방향성에 변화를 주고 있다.

〈프리코러스1〉, 〈벌스2〉, 〈포스트코러스1〉의 전반부 네 마디 부분에서도 〈벌스1〉과 유사한 선율진행이 나타난다. E음이 중심음이 되어 동음 반복되거나 하행 $C^{\#}$음과 단3도를 만들며 전회된 아치형 선율 윤곽을 만든다. 이 두 음 외에도 $G^{\#}$음과 B음이 한 번씩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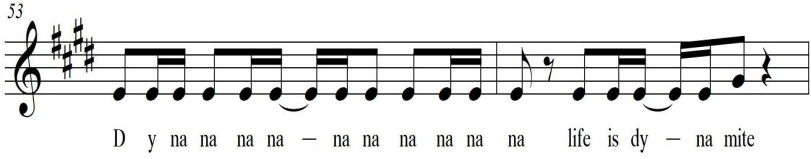
〈그림 13〉 각 부분에 나타난 E음과 C#음 중심의 선율 예시
〈프리코러스1〉 제13-14마디



〈벌스2〉 제33-34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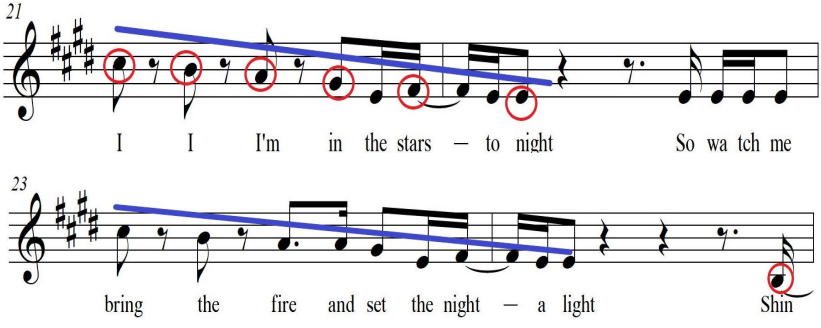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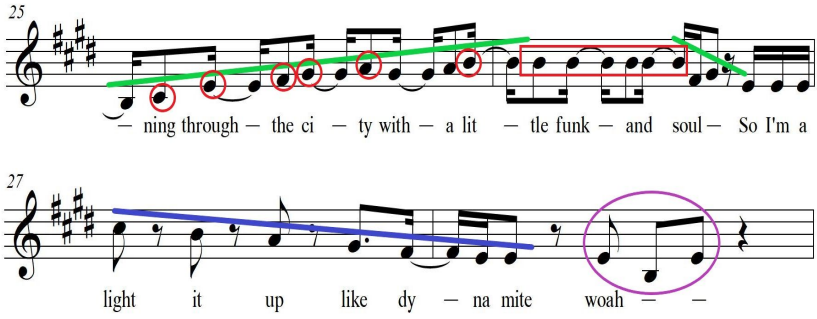
〈포스트코러스1〉 전반부 제33-34마디



보통 노래의 〈코러스〉 부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선율이 나타난다. 〈Dynamite〉도 〈코러스〉에서 이러한 인상을 남기는 선율이 나타나는데 〈코러스〉 이전에 나온 선율들이 대부분 1도-3도 이내 음정인 반면 〈코러스1〉은 제20마디 마지막 E음에서 이 노래의 가장 고음인 $C^{\#}$음으로 장6도 상행 도약하며 〈코러스1〉을 시작한다. 이 음은 앞선 부분들에서 자주 사용된 $C^{\#}$음보다 옥타브가 높은 음정이다.

〈그림 14〉 〈코러스1〉 선율 (제21-28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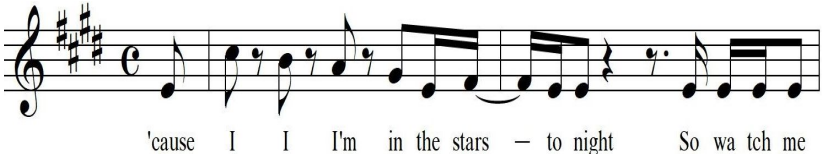


〈코러스1〉은 대비악절인 a+a′+b+a′′의 구조를 갖고 있다. a계열에 해당하는 제21-22마디, 제23-24마디, 제27-28마디는 C#음을 시작으로 2도씩 순차 하행하는 선율을 사용한다. 세 부분이 조금씩 다른 리듬형을 보이지만 하행선율을 이끄는 중심음은 C#-B-A-G#-F#-E음으로 계명창 '라-솔-파-미-레-도'로 구성된다. 이런 하행선율은 긴장이 해소되거나 가라앉는 음악의 표현을 나타낸다(Leonard G. Ratner, 1989:53). 대비 악절 b에 해당하는 제25-26마디는 a 부분들과는 대조적인 리듬과 선율을 사용하고 있다. B음을 시작으로 상행하는 선율이 옥타브 위 B음까지 진행되는데 B-C#-E-F#-G#-A-B음이 상행선율을 이끄는 중심음을 형성한다. 이 중심음들의 계명창은 '솔-라-도-레-미-파-솔'로 E장조 음계에서 7음이 생략된 형태로 노래되고 있다.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선율은 긴장감이나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암시한다(Leonard G. Ratner, 1989:53). 악보 제28마디 후반에는 토닉-도미난트(dominant)-토닉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선율형이 나타난다. 이는 〈코러스1〉의 종결을 강조하기 위한 선율로 축소된 코데타(codetta) 역할로 유추된다. 이 종결 선율은 〈포스트코러스1〉 파트의 종결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코러스1〉의 선율들은 다른 부분에서도 차용하여 반복 사용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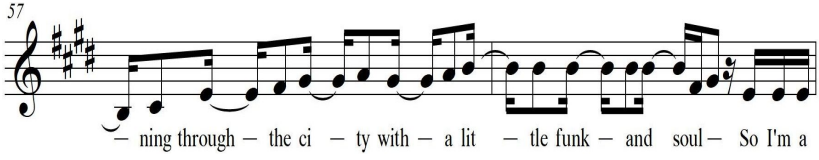
것을 볼 수 있다. 노래 시작인 〈전주〉 네 마디 선율은 〈코러스1〉의 전반부 네 마디 선율과 가사를 그대로 차용했다.(그림-14, 15 참조)

〈그림 15〉 〈코러스1〉 선율을 차용한 〈전주〉 선율 (제1-2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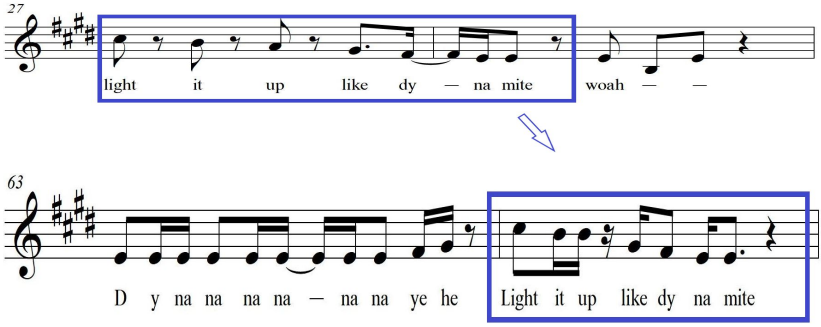
〈포스트코러스1〉의 후반부 제57-60마디 부분도 〈코러스1〉의 후반부 네 마디를 그대로 차용했다(그림-14, 16 참조).

〈그림 16〉 〈코러스1〉 선율을 차용한 〈포트스코러스1〉 선율 (제57-58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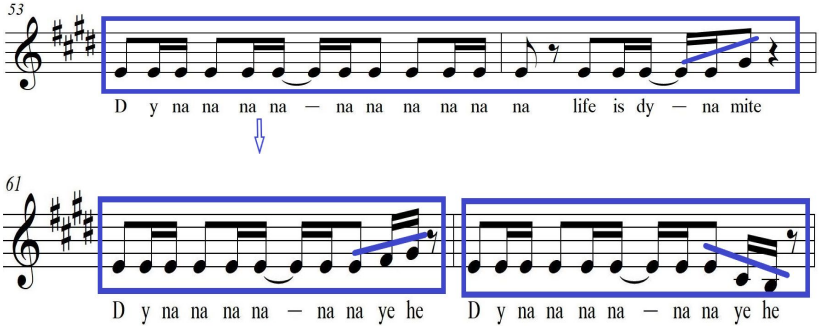
이 노래 〈간주〉는 기존 곡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보통 〈간주〉는 보컬이 연주하지 않고 악기가 그 역할을 하는데 〈Dynamite〉는 〈간주〉에 악기가 휴식하고 보컬이 리드미컬한 선율을 노래한다. 〈간주〉 총 여덟 마디 중 네 번째, 여덟 번째 마디의 종결 악구는 〈코러스1〉에서 'light it up like dynamite' 가사를 사용한 선율을 차용하였다. 하지만 똑같이 모방하지 않고 두 마디에 걸쳐 나오는 선율을 리듬 축소와 변형, 구성음 생략 등의 방법으로 한마디 축소하여 사용했으며 가사는 'light it up like dynamite'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17〉 〈코러스1〉 선율을 축소 차용한 〈간주〉 선율
(제63-64마디)



또한, 〈간주〉 전반부 제61-63마디, 제65-67마디에 사용된 선율은 〈포스트코러스1〉의 제53-54마디의 선율을 차용하여 축소 변형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동음에서 같은 리듬형으로 반복되는 오스티나토(ostinato) 형태로, 두 마디 단위로 E음을 반복하고 상행진행 종결되는 선율은 〈간주〉에서 한 마디 패턴으로 축소되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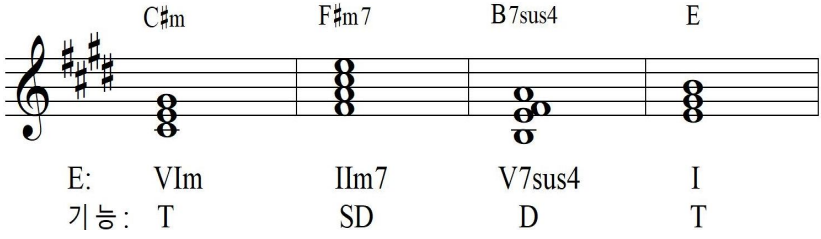
〈그림 18〉 〈포스트 코러스 1〉 선율을 축소 차용한 〈간주〉 선율
(제61-62마디)



2.4. 화성적 특징

〈Dynamite〉 노래에 사용된 코드는 모두 다이아토닉(Diatonic) 코드로 C#m – F#m7 – B7sus4 – E 코드 네 개가 곡의 시작부터 끝까지 순환 반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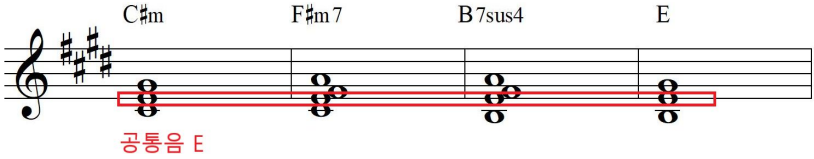
〈그림 19〉〈Dynamite〉 코드진행



위 〈그림 18〉에서 알 수 있듯이 네 개의 화음 중 두 개 코드는 3화음, 두 개 코드는 7화음이다. 각 코드는 토닉-서브 도미난트(Sub dominant)-도미난트-토닉 진행으로 안정적으로 순환하고 있다. B7sus4는 그 뒤에 도미난트 기능 화음이 나오지 않고 바로 I도 화음으로 해결되고 있어 도미난트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이 노래의 선율에서도 리딩톤 D#음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4개의 모든 코드 구성음에서도 리딩톤 D#음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C#m, F#m7, B7sus4, E 코드는 모두 공통음 E음을 포함하고 있는 코드들이다. 공통음 E음은 〈Dynamite〉 노래 선율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난 중심음이다. 기능화성으로 토닉의 역할을 생각할 때 공통음 E음은 안정적인 화성감을 만들고 있다. 실제 이 노래에 나타나는 패드(pad) 계열 사운드는 다음 〈그림 19〉와 같은 보이싱(voicing)으로 채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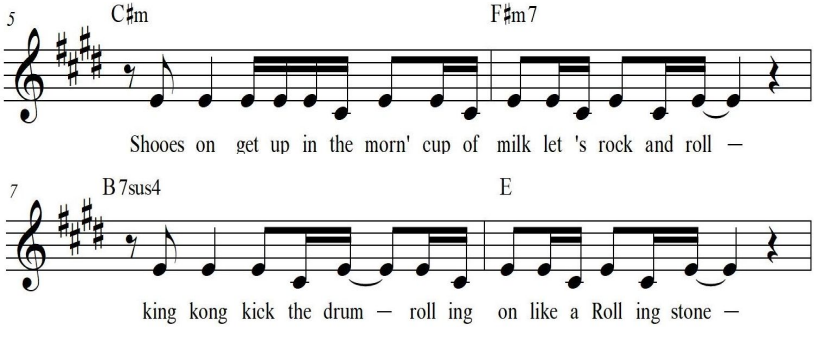
〈그림 20〉 코드 공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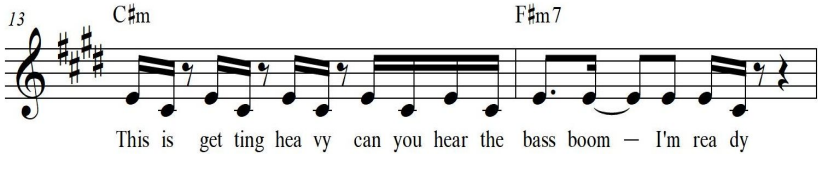
〈Dynamite〉 노래에서 보이는 가장 큰 화성적 특징은 C#m – F#m7 – B7sus4 – E 코드진행이 네 마디 단위로 순환하는 부분과 두 마디 단위로 순환하는 부분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먼저, 〈벌스1〉과 〈프리코러스1〉의 코드진행은 코드 한 개가 4박자를 연주하며 네 마디 패턴으로 순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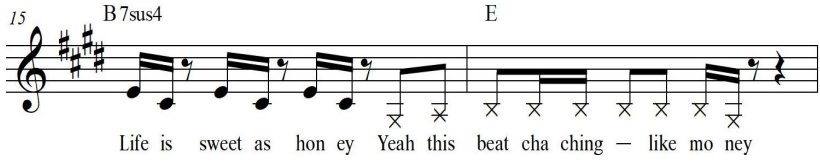
〈그림 21〉 〈벌스1〉, 〈프리코러스1〉의 코드진행

〈벌스1〉 코드진행



〈프리코러스1〉 코드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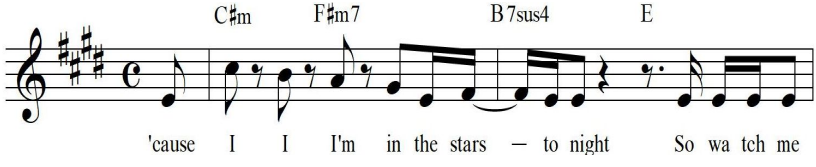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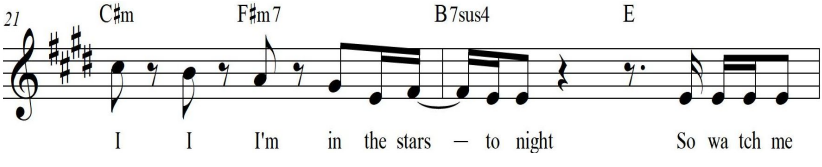
〈전주〉, 〈코러스1〉, 〈포스트코러스1〉 부분은 C#m – F#m7 – B7sus4 – E 코드진행이 두 마디 단위로 순환하고 있다. 이는 〈벌스1〉, 〈프리코러스1〉 부분과 비교했을 때 2배 가속된 속도감을 느끼게 한다.

〈그림 22〉 〈전주〉, 〈코러스1〉, 〈포스트코러스1〉 의 코드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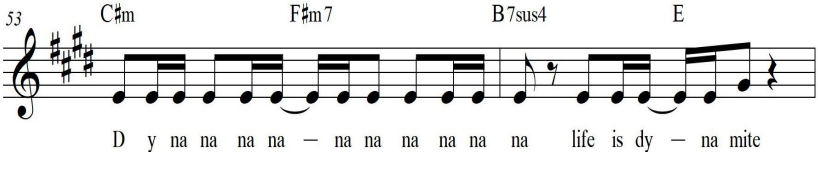
〈전주〉 코드진행



〈코러스 1〉 코드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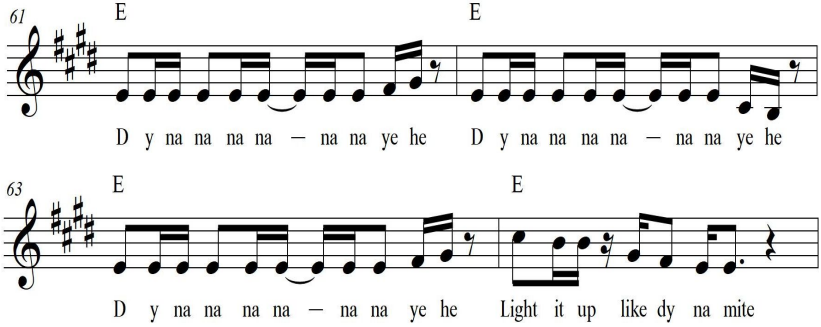


〈포스트코러스1〉 코드진행



〈Dynamite〉의 〈간주〉에서는 E 코드가 8마디 동안 나타난다. 〈간주〉 이전 부분인 〈포스트코러스1〉과 직후의 〈코러스 3〉 사이에서 한 개의 코드가 변화 없이 여덟 마디를 연주하는 것은 감속과 정속의 정체감을 준다. 〈Dynamite〉는 곡 전체에 다이아토닉 네 개 코드만으로 순환 반복되고 있어 자칫 화성에서 지루함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코드진행 순환 주기에 시간 변화를 줌으로 가속과 감속의 운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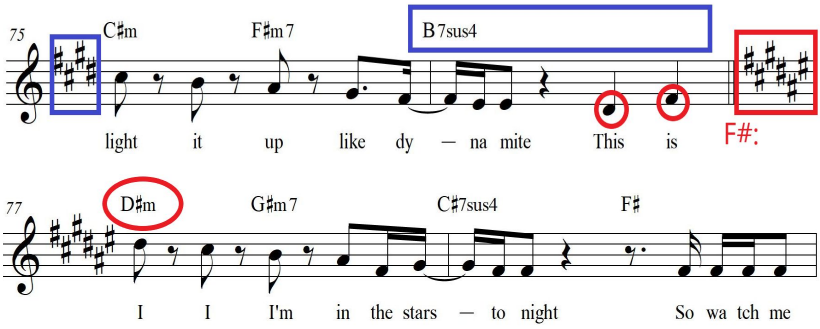
〈그림 23〉 〈간주〉의 코드진행



이 곡의 후반부인 〈코러스4〉와 〈포스트코러스2〉는 E장조의 온음 위인 F#장조로 전조 된다. 앞서 세 차례 연주되었던 〈코러스〉 부분들과 한 차례 연주된 〈포스트코러스1〉의 선율은 장2도 높여 다시 한번 반복되고 코드 역시 F#장조의 VIm – IIm7 – V7sus4 – I의 화음 진행으로 반복된다. 아래 〈그림 23〉의 제76마디는 전조되기 직전 마디로 B7sus4 코드가 기존처럼 E 코드로 진행되지 않고 B7sus4 코드 단독 4박자를 연주한다. 이는 전조를 위한 준비 단계로 가사 'This is'에 해당하는 음 D#과 F#음은 전조 후 나타나는 첫 코드 D#m의 구성음으로 전조를 예비하기 위해 화성음 선율을 사용하였

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D#음은 B7sus4코드의 비화성 중 이탈음(escape tone)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제76마디 세 번째 박자부터 전조 예비를 위해 F#장조의 IV도 화음인 B 코드로 연주한다면 'This is' 가사의 D#과 F#음은 전조 직전 코드 B와 전조 직후 코드 D#m 양쪽의 공통 화성음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다.

〈그림 24〉 후반부 전조 부분



2.5. 텍스쳐적 특징

'텍스쳐'란 본래는 옷감의 산지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음악학에서는 작곡수법상의 특징·현상 등을 의미한다(세광음악출판사 사전편찬위원회, 1992:1519). 음악에서 각 성부의 개별적 소리와 움직임들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음악의 질감을 만드는데 이런 성부들 간의 수평, 수직적 짜임새가 음악적 텍스쳐를 형성한다(Leonard G. Ratner, 1989:78). 음악의 기본 구성 요소인 리듬, 선율, 화성뿐 아니라 템포, 성부 수, 성부의 음색, 음역의 범위와 밀도, 악기 편성 등도 텍스쳐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인데 모두 음악 사운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Dynamite〉는 대부분 대중음악처럼 주선율이 되는 노래와 반주 형태로 이루어진 호모포니(homophony) 음악이다. 주선율 노래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가창했고 반주는 실제 악기를 연주하거나 가상 악기 음원을 활용해 프로그래밍 되었다.

2.5.1. 보컬 텍스쳐

〈Dynamite〉는 방탄소년단 일곱 명의 구성원이 모두 보컬에 참여한 곡이다. 멤버들의 역할에 따라 각 파트와 연주 분량이 분배되었는데 이는 곡 형식에 따라 나눈 각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다. 이런 일곱 명의 개성 있는 음색은 솔로뿐 아니라 듀엣, 트리오, 콰르텟 등의 다양한 조합을 편성하여 부분마다 특징적이고 차별화된 음색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멤버의 구성도 여러 조합으로 꾸리고 있어 부분마다 각양각색의 텍스쳐를 연출한다.

〈전주〉와 〈벌스1〉에서는 안정적으로 팝 스타일 곡을 소화하는 멤버 A가 열두 마디를 노래한다. 〈프리코러스1〉에서는 랩 파트를 담당하며 두터운 중·저 음역을 가진 멤버 B, C가 각각 전·후반을 연주한다. 멤버 B는 리듬 강세를 2, 4박에 주고 있다. 〈코러스1〉에서는 〈벌스1〉을 부른 멤버 A와 미성의 고음역을 가진 멤버 D가 네 마디씩을 나눠 노래한다.

〈벌스2〉에서는 중·저 음역 소리가 풍부한 멤버 E가 여섯 마디를 노래하고 음역이 넓고 샤우팅 창법을 가진 멤버 F가 필인으로, 멤버 B가 후반 두 마디를 랩으로 참여한다. 〈프리코러스2〉는 리듬감이 좋은 래퍼 G가 1, 3박에 강세를 주며 전반부를 부르고 보컬 멤버 D가 후반부를 노래한다. 〈코러스2〉는 멤버 A, E, F 세 명이, 〈포스트코러스1〉에서는 멤버 A, F 두 명이 가창하였다.

〈간주〉에서는 A, D, E, F 멤버 네 명이 오스티나토 부분을 악기의 리듬 파트처럼 노래한다. 오스티나토는 같은 높이로 일정한 음형을 반복해서 연주하는 것으로 〈그림 22〉의 악보와 같이 같은 높이의 E음 9개가 일정한 음형을 만들어 〈간주〉에서만 여섯 번 반복되고 있다.

〈코러스3〉에서는 리듬 파트 악기가 사라지고 멤버 D와 A가 차분한 가성으로 코러스 선율을 부르는데 앞과 뒤 부분과는 대조적으로 얇고 정적인 텍스쳐를 보여준다.

〈코러스4〉는 온음 위로 곡이 전조 되면서 상승의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전반부는 멤버 D가 주선율을 노래하고 멤버 A는 수평적으로 진행하는 대선율을 만들어 두 개의 노래 성부를 만든다. 후반부는 멤버 F가 주선율을 노래하고 멤버 A가 전반부와는 다른 패턴인 쉼표 후 약박에 강세가 오는 리듬적 대선율을 만들어 변화를 준다. 〈프리코러스2〉는 멤버 D, A, F가 주선율, 대선율, 수직적 화음을 여러 겹 쌓으며 다양한 형태의 화음감을 보여주는데 〈Dynamite〉 노래 중 가장 두터운 텍스쳐를 만든다.

〈Dynamite〉의 보컬 성부는 주선율의 역할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보컬 파트의 화음 구성은 주선율과 어울리는 대선율을 만들거나 주선율의 병행 음정을 수직으로 여러 겹 쌓아 화음으로 만든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성부 구성 형태와 부분마다 상이하게 조합된 보컬 음색의 어우러짐은 다양하고 조화로운 텍스쳐를 만들어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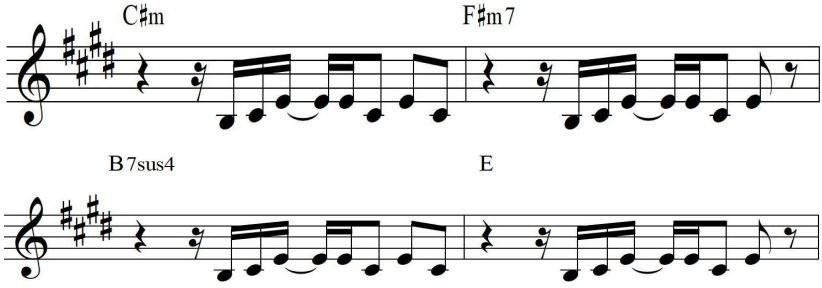
2.5.2. 반주 텍스쳐

〈Dynamite〉의 반주 파트 사운드는 실제 악기 연주와 가상 악기의

사운드가 잘 조합되어 만들어졌다. 반주에는 드럼, 기타, 베이스 기타, 피아노, 브라스 등의 악기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신시사이저 음원, 효과음(FX) 등이 사용되었다. 반주를 담당하는 악기들도 보컬의 경우처럼 각 부분마다 명확히 구별되는 악기 편성을 보인다. 보컬의 음색 조합이 계속 변화된 것처럼 반주에서도 악기 수가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방법으로 텍스쳐를 변화시키고 각 부분을 대표하는 주요 악기를 등장시켜 특징적인 사운드를 보여준다.

〈전주〉는 중음역의 패드 사운드와 아날로그 감성을 표현하는 L.P 노이즈 사운드만 나타난다. 패드는 곡 전체에 순환되어 나오는 네 개의 코드진행 C#m – F#m7 – B7sus4 – E 코드를 두 번 반복하여 연주한다. 〈벌스1〉은 앞의 〈전주〉 사운드에 저음역의 베이스 드럼과 베이스 기타가 추가된다. 베이스 드럼은 한 마디에 네 번 정박에 연주하는 디스코 리듬을 준비한다. 〈프리코러스1〉에서는 앞의 사운드에 중음역의 일렉트릭 기타(electric guitar)가 추가되어 리프(liff) 선율을 연주하고 클랩(clap)과 그 외 효과음들이 나타난다.

〈그림 25〉 〈프리코러스1〉의 기타 리프



〈코러스1〉에서는 앞의 사운드에 명료한 음색의 피아노가 추가되어 중음역의 리듬 파트를 보강하고 백그라운드 보컬 효과음이 사용

된다. 〈벌스2〉는 〈벌스1〉의 악기 편성에 클랩을 추가하여 앞 부분과 차별된 사운드 변화를 준다. 〈프리코러스2〉에서는 〈프리코러스1〉의 편성에 일렉트릭 기타가 역할과 음색을 바꿔 리듬 기타로 코드를 연주한다. 〈코러스2〉는 피아노가 추가되고 계속 리듬 기타가 연주된다. 이 부분이 〈코러스1〉과 다른 점은 리듬 기타가 포함된 점이다. 〈포스트 코러스 1〉은 앞의 편성에 고음역의 브라스가 추가되는데 직전 코러스 파트의 노래 선율을 브라스가 주선율로 연주한다(〈그림 14〉의 악보 참조). 보컬은 이때 E음 위주의 리듬형을 노래하여 브라스 성부와 조화를 이룬다.

〈간주〉는 지금까지 팽창되었던 반주 성부의 여러 층을 수축시켜 얇은 텍스쳐를 만들어 내는 독특한 구성을 보인다. 전반 네 마디는 반주에 드럼과 클랩만 연주시키고 여기에 보컬과 코러스만 더해진 사운드를 만든다. 후반 네 마디는 베이스 기타, 리듬 기타, 브라스가 추가되어 성부를 확장시킨다. 〈코러스3〉에서도 역시 사운드를 덜어내는 텍스쳐를 취하는데 전반 네 마디는 보컬과 패드만 남는다. 패드는 기존 연주와 달리 당김음을 사용하여 리듬에 변화를 준다. 후반 네 마디는 리듬 기타와 클랩이 추가되고 〈코러스4〉로 넘어가기 마지막 한마디 전에는 드럼 필인이 나타난다.

〈코러스4〉는 $F^{\#}$장조로 전조가 되는 부분으로 〈코러스2〉의 편성에 여러 층의 보컬 화음이 쌓여 화려한 텍스쳐를 보여준다. 마지막 〈포스트코러스2〉는 앞의 편성과 사운드에 브라스가 보강되고 보컬 주선율 외에 대선율, 여러 층의 수직 화음이 나타난다.

〈Dynamite〉 반주에 사용된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 건반악기, 신시사이저, 효과음 등은 다른 악기군으로 고유의 소리 질감도 달라 부분마다 다양한 사운드를 보여준다. 각 성부 음역은 베이스 드럼, 베이스 기타가 저음역을 소리냈고 일렉트릭 기타, 피아노, 패드가

중음역을 연주했다. 브라스와 여러 효과음들은 고음역 성부를 담당했다. 또한, 성부 구성에 있어 패드는 화성적 지원을, 드럼과 베이스 기타는 리듬적 지원을, 일렉트릭 기타와 피아노는 화성 및 리듬적 지원을, 브라스는 주선율과 리듬적 지원을 하며 보컬 파트와 비교해 더 많은 운동성을 가진 두껍고 다채로운 텍스쳐를 만들어 낸다.

3. 결론

방탄소년단의 〈Dynamite〉 작품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이 곡은 1절과 2절로 된 유절 형식으로 〈전주〉, 〈벌스〉, 〈코러스〉 등 12개로 구분된 각 부분들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어 노래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구조를 취한다.

〈Dynamite〉의 리듬은 모티브가 되는 4개의 기본 리듬형이 반복, 축소, 확대, 역행, 변형, 결합 되면서 악곡 전체로 전개되었다. 특히 동형 리듬에 붙임줄을 사용해 강세의 위치를 변경하는 리듬적 변화는 다양한 리듬 패턴을 생성하며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Dynamite〉는 7음이 생략된 E장음계를 사용하고 있다. 노래 음역은 전조된 부분을 포함하여도 최저음 B음에서 옥타브 위 $D^{\#}$음에 이르는 10도 음정으로 대중들이 편하게 노래할 수 있는 음역대와 음폭으로 작곡되었다. 이 노래 선율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코러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E음과 $C^{\#}$음 두 개로만 대부분 선율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E음 동음이 연속으로 반복되거나 E음과 $C^{\#}$음이 만드는 전회된 아치형 선율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코러스〉의 선율 윤곽선은 다른 부분들의 선율 형태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6개 음이 하행과 상행으로 순차진행 되고 있어

쉽게 기억되는 선율로 작곡되었다.

이 노래에 사용된 화음은 모두 네 개 화음으로 다이아토닉 코드 C#m – F#m7 – B7sus4 – E 코드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 네 개의 코드는 모두 E장음계의 7음 D#음이 포함되지 않은 화음들로 선율에서도 사용되지 않았던 D#음이 화성에서도 제외된 모습을 보인다. 코드진행은 네 마디 패턴과 두 마디 패턴으로 순환되며 곡의 속도감을 조절한다.

〈Dynamite〉는 호모포니 텍스쳐를 취하고 있는데 보컬과 반주는 성부 수, 음색, 음역 범위, 편성 방식을 다르게 배치하여 다양한 음악적 질감을 보여준다. 12개의 각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조화로운 텍스쳐를 만들고 있다.

상업적 성공을 거둔 〈Dynamite〉의 작품 분석을 통해 파악한 대중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곡의 형식이 노래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반복 구조로 되어 있다. 〈벌스〉, 〈프리코러스〉, 〈포스트 코러스〉는 두 번씩 반복되고 〈코러스〉는 네 번 반복된다. 둘째, 노래에 사용된 음역과 음역 폭은 대중이 편하게 노래할 수 있는 범위를 사용하였다. 셋째, 노래 선율은 대부분 두 개 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잦은 반복으로 후크송적 요소가 있는 〈코러스〉에서는 가창이 용이한 순차진행 선율을 사용하였다. 넷째, 4개의 코드가 순환 반복되는 코드진행 패턴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근래 대중음악 작품들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다. 다섯째, 디스코는 1970년대부터 인기가 있었던 댄스 장르로 캐쥬얼 리스너들에게도 친숙한 디스코 리듬을 배치하여 대중음악에서 꾸준히 나타난 '복고' 추세(박선민, 2020: 225)를 반영하였다. 여섯째, 영어 가사로 된 〈Dynamite〉는 영어권 대중들에게는 쉽게 접근될 수 있었고 〈코러스〉, 〈포스트코러스〉의 가사는 어렵지 않은 영어 가사로 국내 대중들에게도 큰 거부감 없

이 받아들여졌다. 위에서 서술한 음악적 내용은 감상자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리게 하는 '후크 효과'(이난수, 2012:588)의 중요 요소가 되어 친 대중적 작품 생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모든 예술에서 그렇듯 음악작품에서도 통일성과 다양성은 형식미의 중요한 구성 원리이다. 〈Dynamite〉 작품에 나타난 통일성의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러스〉에 사용된 선율 모티브는 〈전주〉, 〈포스트코러스〉, 〈간주〉에서도 사용되었다. 둘째, 노래 선율에 나타난 중심음은 E음이고, 곡에 사용된 4개의 코드도 모두 공통음 E음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화음 4개로 구성된 코드진행 패턴이 곡 전체에 순환 반복 사용되고 있다. 넷째, 〈코러스〉, 〈프리코러스〉 등의 곡 형식상 반복이 나타나는 곳은 대부분 동일한 노래 선율이 사용되고 있다. 다섯째, 후반 $F^{\#}$장조로 전조된 부분인 〈코러스4〉와 〈포스트코러스2〉의 노래 선율과 코드진행은 전조 이전과 다르지 않고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여섯째, 〈포스트코러스1〉에 처음 등장하는 브라스 선율은 직전 〈코러스〉의 노래 선율과 동일한 선율을 연주한다.

〈Dynamite〉는 곡 형식상 반복되는 모든 부분에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가미하여 서로 다른 질감의 텍스쳐를 만들어낸다. 이런 변화가 반영된 다양성의 요소는 악곡을 전개 발전시켜 나가는 힘이 되고 있다. 이 곡에 나타난 다양성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탄소년단 멤버 일곱 명은 각기 개성 있는 음색을 가지고 있는데 솔로, 듀엣, 트리오, 콰르텟 등의 편성 변화와 다양한 음색 조합으로 각 부분마다 특색 있는 텍스쳐를 형성한다. 이런 변화는 보컬뿐 아니라 반주의 악기 편성에서도 적용되어 다채로운 질감을 보여준다. 둘째, 반주에 사용된 일렉트릭 기타의 경우 〈프리코러스1〉에서는 리프 선율을 연주하고 반복되는 〈프리코러스2〉에서는 다른 음색의 리듬 기타로 코드를 연주해 변화를 주었다. 셋째, 노래의 〈간

주〉에서는 기존 대중음악의 〈간주〉 스타일과는 다른 형태가 나타났다. 악기 위주로 연주되며 보컬에 휴식을 제공했던 〈간주〉가 오히려 악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보컬이 리듬 악기처럼 노래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넷째, 동일한 선율을 노래하는 〈프리코러스1〉과 〈프리코러스2〉는 보컬 톤의 변화 외에도 다운 비트(down beat) 강세와 업 비트(up beat) 강세의 차이를 통해 섬세한 텍스쳐를 만들고 있다. 다섯째, 네 차례 반복되는 〈코러스〉 부분들에서도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사용하여 특색 있는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 보컬의 화음 쌓는 방식으로는 대선율, 병행 음정으로 쌓는 화음, 여러 성부로 두꺼운 화음 층을 만드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

〈Dynamite〉는 상업적 성과를 떠나 음악적으로도 분석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곡이다. 선율과 화성에서는 대중성과 통일성의 요소가 두드러졌고 리듬과 텍스쳐에서는 변화와 다양성의 요소가 적용되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친 대중적인 선율과 화성 작법으로 자칫 단조로워질 수 있는 악곡에 리듬과 텍스쳐는 다채로운 표정과 생기 있는 율동감을 공급한다. 이 작품에 담긴 총체적 구성 원리와 음악 어법은 대중음악 창작자들에게 작품 이해도를 높여주고 작품 활동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본 논문은 그동안 방탄소년단의 업적과 영향력에 비해 음악적 연구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의 〈Dynamite〉를 심도 있게 분석 연구함으로써 한국대중음악 작품 연구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고는 대중음악계 경향상 연구자 채보에 의존한 작품 분석이 이루어진 제한점이 있다. 한국대중음악사에 의미 있는 예술 작품들을 발굴하고 음악적 분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길 제언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정양・이종록・한광희. 2000.「누구나 작곡할 수 있는 작곡법」, 엘멘.

박선민. 2020.「케이팝 인사이트」, 북코리아.

세광음악출판사 사전편찬위원회. 1992.「음악 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윤양석. 1990.「음악 형식론」, 세광음악출판사.

Leonard G. Ratner. 노영해 역. 1989.「서양음악의 어법과 의미」, 세광음악출판사.

Jack Perricone. 양우석 역. 2002.「멜로디 인 송라이팅」, 현율음악출판사.

2. 학회지 논문

김영환・윤보미・김선정. 2021.「대중가요 작사를 통한 학교와 교육에의 시사점 연구 : 방탄소년단 노랫말 분석을 중심으로」『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21-12,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87-99.

윤아영・박영주. 2020.「방탄소년단(BTS) '아이돌(Idol)'에 융합된 한국 음악 요소 연구 및 수업적용」『문화와 융합』42-10, 한국문화융합학회: 373-390.

이난수. 2012.「K-POP의 '감흥'에 대한 연구 : 후킹효과를 중심으로」『인문학연구』43,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559-592.

장정윤. 2020.「다양한 예술 매체의 통합으로 완성한 '기억하기' :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 <봄날>의 이미지 연구」『스토리&이미지텔링』19, 스토리&이미지텔링 연구소: 247-271.

3. 학위 논문

김지원. 2021.「방탄소년단(BTS) 노래 가사 감상 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 행복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소은. 2019.「K-POP 스토리텔링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4. 신문 및 잡지 기사

김두연. <방탄소년단, 기네스북 명예의 전당 “23개 기록 인증”>, 스포츠한국, 2021, 09, 04.
김효정. <‘청년세대 아이콘’ 성장한 BTS, 대통령 특사로 유엔 무대에>, 연합뉴스, 2021, 스타투데이, 2021, 07, 21.
롤링스톤 편집부. <The Triumph of BTS>, Rolling Stone KOREA, 2021, 06
박세연. <방탄소년단 ‘버터’, 빌보드 핫100 10번째 1위 ‘위업’>, 스타투데이, 2021, 09, 08.
유원정. <방탄소년단 ‘버터’ 빌보드 ‘핫100’ 역주행 14위>, CBS 노컷뉴스, 2021, 09, 22.

5. 음반

방탄소년단, <Dynamite>, 빅히트뮤직, 2020, 08, 21.

6. 기타

멜론, ‘Dynamite 앨범 정보’ https://www.melon.com/album/detail.htm?albumId=10479150
지니뮤직, ‘Dynamite 앨범 소개’ https://www.genie.co.kr/detail/albumInfo?axnm=81545399
한국대중음악시상식, ‘올해의 노래’ https://koreanmusicawards.com/winners/winner-total/

Abstract

An Analysis of Works by BTS <Dynamite>

Jeong, Jin
(Chu Gye University for Ar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work of BTS's song "Dynamite," which was the first Korean singer to rank first on the Billboard HOT 100 chart. By musically analyzing this song, various composition techniques and musical grammar were identifi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creators create music and provide meaningful data in the field of music research of Korean popular music. For this study, the structural, rhythmic, melodious, harmonious, and textural characteristics of the work were analyzed and studied.

<Dynamite> was divided into 12 parts in the form of a song, and each part contains distinctive musical elements. For the rhythm of this song, four motif rhythmic forms were developed throughout the work, and the method used methods of repetition, reduction, enlargement, retrograde, transformation, and combination. The stress is changed due to the tie to generate various rhythm patterns. E and C# notes are mainly used for the melody, and the same note is repeated, or the melody consisting of only these two notes appears in all parts except for the <Chorus> part. The <Chorus> part is a sequential progression melody composed of six notes. This melody consists of descending and ascending, creating a melody that is easy to sing. In the harmony of this song, a monotonous progression appears in which four chords repeat circulation. The vocal part plays the main melody, and the instrument part plays the accompaniment. Each part of the form classified into 12 changes the number of layers, tone, voice range, and organization method. So, it is creating a colorful and harmonious texture. In this work, elements of popularity and unity appear in melody and harmony, and elements of change and diversity are reflected in rhythm and texture, creating a balanced harmony of works.

Until now, research focusing on music has been insufficient, focusing only on BTS' achievements and influence.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providing meaningful data for the musical research of Korean popular music by analyzing and researching

<Dynamite> from a musical point of view.

Key words : BTS, Dynamite, Music analysis, Popular Music, K-POP

논문 투고일: 2021년 09월 30일
논문 심사 완료일: 2021년 11월 23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21년 11월 25일